

“안방이 약점이라고?” ... 4명의 포수들이 악물었다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캠프**

김여울 기자 미국 투싼 캠프를 가다

‘안방이 약점?’ KIA 타이거즈 포수들이 이를 악물었다.

KIA는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2023시즌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KIA 전력은 지난해에 비해 탄탄해졌다.

손앤더슨과 아도니스 메디나 ‘강속구 듀오’로 외국인 투수진을 새로 꾸렸고, 지난 시즌 전역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김기훈과 ‘투키’ 윤영철 그리고 박동원의 FA 보상선수인 김대우까지 좌완이 풍성해지면서 마운드 구상을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내야도 총출해졌다. 트레이드를 통해 한화에서 영입한 변우혁이 힘으로 어필하고 있고, 프로 적응을 끝낸 김도영은 매서운 방망이로 선배들을 위협하고 있다. ‘에비역’ 홍중표와 호주리그에서 경험을 쌓은 김규성도 내야층을 두텁게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와 나성범이 두 축을 이루는 외야에는 최원준이 6월 전역을 앞두고 있는 등 플러스 요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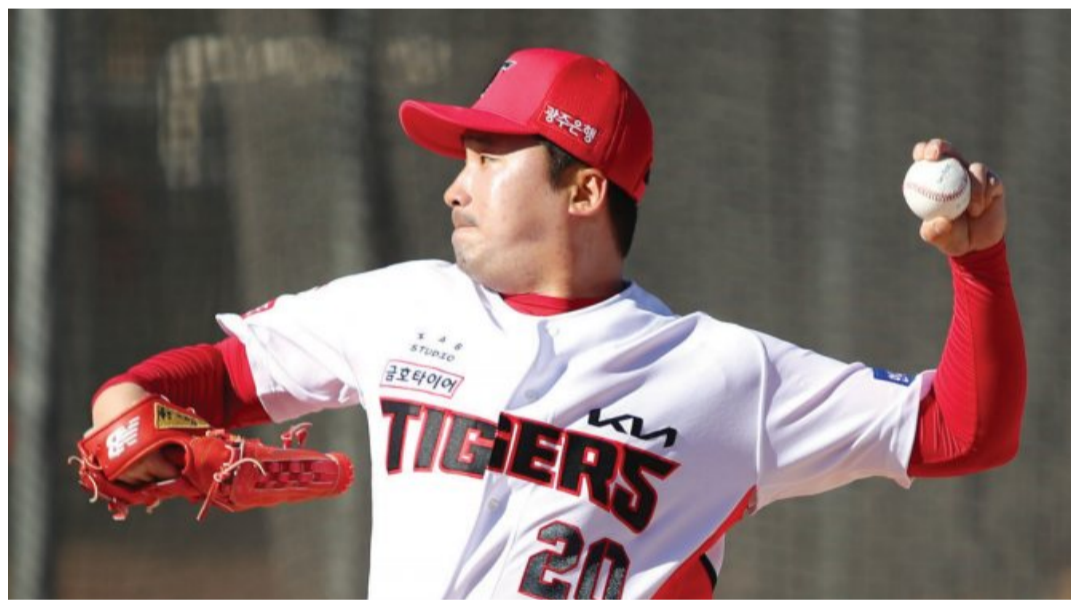
전체적인 전력 상승세 속 눈길은 ‘안방’으로 향한다.

KIA는 지난 시즌 주전 포수로 활약한 박동원을 FA 시장에서 놓쳤다. 이에 앞서 키움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주효상을 영입했지만 아직 사람들의 시선에는 물음표가 따라온다.

김종국 감독은 수비를 우선 순위로 두고 포수 포지션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수 최고참이 된 한승택과 ‘1차 지명’ 주효상이 안방 경쟁의 두 축이 될 전망이다. 신범수와 김선우도 애리조나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면서 포수 전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가장 경험이 많은 한승택은 ‘부상과 수비’를 키워드로 꼽았다.

한승택은 “부상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잘 안 아프지 않아 버틴 것이라고 생각한다. 캠프에서 치료실에서 살고 있다. 포수는 하체가 중요하니까 얼음 찜질을 비롯해 관리를 많이 하고, 일찍 일찍 자면서 몸을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영 “억대 연봉 목표 이뤄 ... 몸값 해야죠”

‘억대 연봉’ 목표를 이룬 KIA 타이거즈의 좌완 이준영이 “연봉값 하겠다”며 웃었다.

이준영은 지난 시즌 75경기에 나와 2.91의 평균 자책점으로 1승 1패 1세이브 17홀드를 기록했다.

2년 연속 KIA의 확실한 좌완 불펜진으로 활약한 덕분에 5000만원이었던 연봉은 올 시즌 1억4000만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준영은 올 시즌 팀 내 최다 인상을(109%)도 찍었다.

이준영은 “억대 연봉 찍는 게 야구하면서 목표 중 하나였는데 이뤄서 좋다. 이제 유지해야 한다. 작년 처럼만 하면 좋을 것 같다”며 “억대 연봉자니까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 좌완 불펜에 시선이 쏠린다. 박동원의 FA보상 선수로 검증된 좌완 불펜 김대우가 새로 가세했고, ‘선발 후보’인 김기훈도 상황에 따라서는 좌완 필승조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좌완 경쟁이 더 치열해졌지만 이준영은 ‘내 것’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겠다는 생각이다.

이준영은 “확실히 대우형한테 배울 것도 많고, 많이 알려준다. 좋은 것 배우려고 한다. 경쟁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기 것 잘하는 게 중요하다. 서로

한승택 “부상 방지·수비가 중요”

주효상 “몸 만들기에 최우선”

신범수 “간절함으로 실력 증명”

김선우 “매일 배우고 성장한다”

이러 “포수는 그래도 수비다. 수비 소홀히 하지 않고 예전보다 더 성장해서 완벽하게 만들도록 하겠다”며 “방망이는 내가 만들어야 한다. 내가 잘하면 시합 많이 나가는 것이다. 실수도 많이 했으니까 개선을 위해 연습도 하고, 보강 웨이트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경쟁에 나서는 각오를 말했다.

주효상은 몸 만들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그는 혈액으로 근육을 한 뒤 지난 가을 복귀했다.

주효상은 “가장 큰 장점이 송구였는데 생각보다 팔이 말을 안 듣고 있다. 그래도 트레이닝 파트에서 신경 써주고 있어서 관리 잘하면 예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타격에서는 이범호 코치님이 섬세하게 가르쳐주시고 좋다고 하신다. 걱정 안하고 준비 더 잘해서 시범 경기와 개막전을 준비하겠다. 승택이 형과 일한 번 내겠다. 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신범수는 제주 마무리캠프의 여세를 몰아 쉽 이 달리고 있다.

신범수는 “겨울에 쉬지않고 운동했다.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책임감도 많이 들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만 든다. 간절함으로 하고 있다. 캠프 초반부터 코치님, 감독님 눈에 들 수 있게 하려는 생각으로 왔다. 연습경기 출장 등 기회를 받게 되면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송구 동작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다. 방망이도 중심에 맞출 자신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어필 하겠다. 1군에서 많이 보여주지 못했지만 좋은 선수는 걸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막내 김선우는 캠프에 참가한 자체로도 행복하다. 선배들을 보면서 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김선우는 “행들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있다. 보는 것 만으로도 훈련이 된다”며 “블로킹, 송구에 자신 있다. 처음 왔을 때부터 코치님과 기복을 즐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내 김선우는 캠프에 참가한 자체로도 행복하다. 선배들을 보면서 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김선우는 “행들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있다. 보는 것 만으로도 훈련이 된다”며 “블로킹, 송구에 자신 있다. 처음 왔을 때부터 코치님과 기복을 즐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wool@kwangju.co.kr



미국 애리조나 캠프에 참가한 KIA 타이거즈의 포수 김선우(왼쪽부터), 신범수, 한승택, 주효상, 김상훈 배터리 코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검은색칠 공을 보면 2개 베이스를 뛰어라”

WBC 대표팀 주루 훈련



야구 단기전은 팀 내 우수한 투수들이 모두 출전하기 때문에 한두 점 차로 승부가 갈릴 때가 많다.

이 때문에 공격팀은 한 베이스를 더 가기 위한 다양한 작전을 펼치고, 수비팀은 주자를 묶어두기 위해 치열한 지략 싸움을 펼친다.

2023 월드베이스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 투싼에서 열리는 전지 훈련에서 ‘한 베이스 더 가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번트, 도루 등 일반적인 작전은 물론, 평소 보기 드문 특수 훈련까지 받는다.

대표팀은 최근 김민호 주루 코치의 아이디어로 일부 훈련구 절반가량을 까맣게 색칠했다.

김 코치는 21일(한국시간) 투싼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대표팀 주루 훈련에서 색칠 공과 일반 공을 마구잡이로 쳤고, 주자로 나선 선수들은 굴러가는 공의 색깔을 순간적으로 확인한 뒤 2루까지 뛴지, 3루까지 뛴지 정하고 전력 질주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김민호 코치는 색칠 공으로 2개 베이스를 뛴 수 있는 타구, 일 반공으로는 1개 베이스만 갈 수 있는 타구를 만들 었다”며 “이 훈련은 선수들이 타구 방향과 속력에 따라 어디까지 진루할지 빠른 결정을 내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표팀이 ‘색칠공 훈련’을 하는 이유는 본선 1라운드와 8강이 열리는 일본 도쿄돔이 실내 구장 이기 때문이다.



WBC 대표팀 훈련 더그아웃에 작전 훈련에 쓰이는 검은 점이 찍힌 공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야외 구장보다 조도가 낮은 돔구장에서 상대적으로 타구의 방향과 세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선수들은 타구를 빠르게 확인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온라인 인종 차별 피해 토트넘·영국 축구협 “강력 대응”

손흥민(31·토트넘)이 온라인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데 대해 잉글랜드 축구협회(FA)도 대응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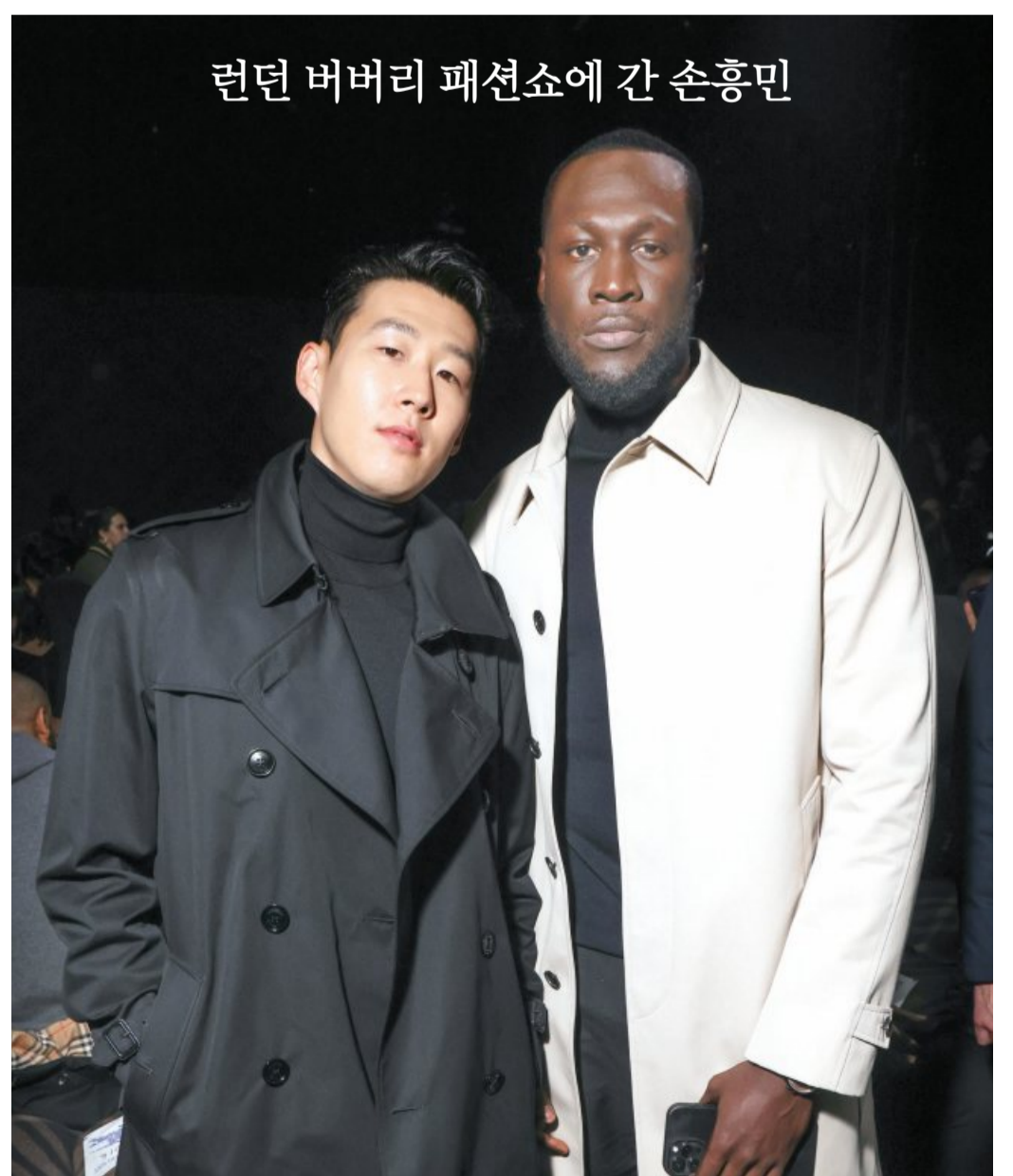
FA 대표인은 20일(한국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의 경기에는 차별이 설 자리가 없으며, 당국과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토트넘 구단은 이날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홈 경기 뒤 손흥민이 온라인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리그 6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2-0 승리에 앞장섰으나, 일부 축구 팬들은 그를 공격했다.

구단은 “오늘 경기 중 온라인에서 손흥민을 향한 부끄러운 인종차별적 욕설이 있었던 것을 인지했다”며 “우리는 손흥민과 함께 서서 소셜 미디어 회사와 당국이 조치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손흥민이 피해를 본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EPL 경기에서 상대 팀 첼시의 팬이 그를 향해 눈을 옆으로 찡는 제스처를 취했고, 첼시는 해당 팬에게 무기한 경기장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 그에 앞서 2021년 4월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팬들이 두 팀의 대결 이후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적 악플을 달아 논란이 됐다. 영국 경찰은 이들 중 12명에게 ‘사과 편지’를 쓰도록 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핫스퍼의 손흥민(왼쪽)이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버버리 2023 가을/겨울 패션 컬렉션에 참석해 영국 가수 스톰지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